

# 치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한 뜨거운 열정으로 언제 어디서나 젊음과 용맹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씁없이 정진하는 여러분에게 찬탄과 격려를 전하며, 제3회 Young Buddhist Camp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학생 불자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청년 대학생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열정야말로 우리 사회의 양심을 일깨우는 자명고였습니다. 그러한 청년 대학생들의 도전이 바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그동안 대불련이 보여준 순수하고 소중한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불교계 내외에서 성취하였던 수많은 일들은 스스로 불교계를 성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대불련이 배출한 인재들은 불교계는 물론 사회의 굳건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불교 현대화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마주하고 뚝딱처럼 도전하라!"

불교의 대선사이자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이셨던 만해스님께서는 일제강점기의 암흑시대에,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맞서 자유, 진보, 민족사상을 널리 전파하여 민족 독립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러한 만해스님의 정신이 깃든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이번 캠프를 개최하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서원의 장소로 부족함이 없으며 만해스님의 뜻을 더욱 기리고 선양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원속에서 부처님의 정신을 나부터 실천하고 불교계와 사회의 든든한 미래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대학생 청년 불자들이 두려움에 맞서 스스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불교계의 힘과 정성을 함께 모아하겠습니다.

대학생 청년 불자들의 결집의 장인 제3회 KBUF Young Buddhist Camp가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흥사, 백담사,  
낙산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최경환 회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의 진력을 치하하며,  
두려움에 맞서는 패기와 열정으로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거듭 확인하  
는 Young Buddhist Camp가 되기를 불보살님 전에 기원합니다.

불기2556년 8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